

주요 천문 현상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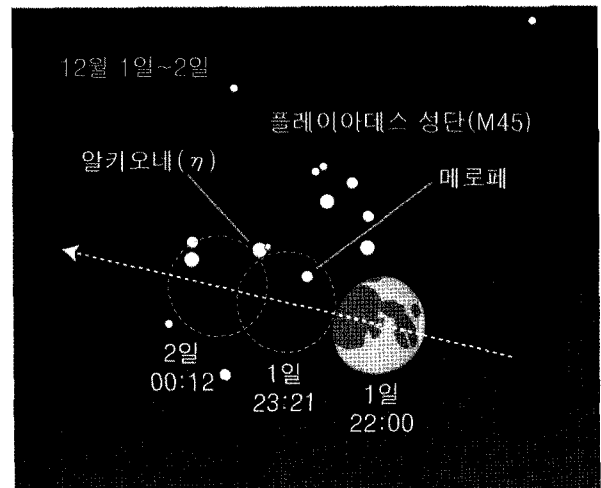
01일	23:21~00:12 황소자리 에타별(M45) 엄폐
02일	14:00 천왕성 유(서→동) 16:30 망
07일	08:52 대설(태양 황경 255°)
09일	09:13 하현
14일	14:10 쌍둥이자리 유성우(ZHR:120)
16일	21:02 합삭
19일	02:00 수성 동방최대이각(20° 18')
20일	19:30 목성-해왕성 접근(33')
22일	02:47 동지(태양 황경 270°) 01:00 화성 유(동→서)
25일	02:36 상현
26일	18:00 수성 유(동→서)

S	M	T	W	T	F	S
		1	2	3	4	5
		●	● 망	●	●	●
6	7	8	9	10	11	12
●	●	●	● 하현	●	●	●
13	14	15	16	17	18	19
○	○	○	○ 합삭	○	○	○
20	21	22	23	24	25	26
)))))) 상현)
27	28	29	30	31		
●	●	●	●	●		

◎ 11일, 황소자리 에타(η)별 엄폐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성단(M45)은 맨눈으로도 6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는 크고 밝은 산개성단이다. 망원경으로는 보석처럼 빛나는 수십 개의 별을 확인할 수 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도로부터 약 4°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종종 달이 성단을 지나가기도 한다.

오는 11일 밤 11시 21분부터 달에 의한 황소자리의 에타별 엄폐 현상이 있을 예정이다. 2.9등급인 에타별은 '알키오네(Alcyone)'라 불리며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속한 200여 개 별 중에서 가장 밝다. 이에 앞서 밤 10시 27분쯤에는 4.1등급의 메로페(Merope)를 가린다. 에타별 엄폐는 다음 날인 12월 0시 12분에 끝난다.



◎ 14일, 쌍둥이자리 유성우 극대

지난달에는 사자자리 유성우의 활동이 예년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ZHR은 90개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달 14일은 사분의자리와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자리 유성우 극대일이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연간 활동하는 가장 멋지고 확실한 유성우로 알려져 있다. 14일은 합삭을 이틀 앞둔 날이어서 달에 의한 영향은 없다. 그러나 극대 예상 시각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2시 10분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상 ZHR은 120개이다.

▼ 2009년 11월 18일 사자자리 유성우. 맨위의 선은 유성이 아닌 인공위성의 궤적이고 그 아래로 2개의 유성이 보인다.

